



2012 아산 기업가정신 심포지엄 리포트

주제 |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일시 | 2012년 10월 5일(금) 14:00

장소 | 아산정책연구원



Asan Entrepreneurship

2012 아산 기업가정신 심포지엄 리포트

Symposium Report 2012

Program

14:00-14:10 개회식

14:10-16:10 주제발표

한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과 시사점 -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대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중고교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과 대안 - 하규수 호서대학교 교수
정부의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정책 - 금기현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16:10-16:20 Coffee Break

16:20-18:00 토론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
김진수 중앙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과 시사점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 최근 3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 유럽 및 한국에서도 활성화
 - 최근에는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
- 유럽 소위원회 교육분과에서 초·중등 및 대학 교과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반영해야 함을 권고 및 공표함
 - 미국에서는 20-3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사례1) A Techno-Entrepreneurial Impact :
2008년 말 기준, 미국 MIT 동문의 창업기업은 25,800개(2010년 대한민국 벤처기업 수는 약 25,000개)로 창출한 일자리 수는 약 330만 개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9천억 달러
 - 사례2) University of Arizona : 1985년~1998년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졸업자의 27%가 사업을 수행했고,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9%에 불과, 교육경험이 있는 기업가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높은 매출신장률, 3배 이상의 높은 신제품 개발력을 보유
- 2009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경제성장, 지속가능 경제,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현재 모든 국가의 당면 문제점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활성화, 창조와 혁신을 언급
 - 저개발 국가에 대해 단순한 재정원조 보다는 기업가를 양성하여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의 변화를 모색 중이며, 선진국 내에서도 부모나 친지 중 기업가가 없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본 교육이 기초가 되어 가난·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은 태도와 인식, 기업가정신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노출이 중요, 학제간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적 교수법 개발과 교육 인프라 구축 기술 활용으로 지역적, 계층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흐름

- 미국은 하버드 대학에서 2차 세계대전 후 복학한 제대 군인들에게 마땅한 취업 기회가 없어 창업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초·중·고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중
 - 초등교육은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JA, DECA, Kauffman Foundation, Coleman Foundation, NFTE의 경우 저소득층 초·중등학생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자극하고 있음
 - 중·고등과정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특성화한 학교를 만들고 있음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이 있는 기업가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높은 매출신장률,
3배 이상의 높은 신제품 개발력을 보유



● 유럽은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중

- EC산하의 'The European Foundation for Entrepreneurship'을 설립(1987)
- 영국에서는 'National Council for Graduate Entrepreneurship'을 설립(2004)하여 기술혁신 기반의 창업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매년 우수한 기업가정신 교육 대학을 선정하여 수상, 학교들에 대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을 늘림으로 대학들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한국은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으나,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

-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대학원과 창업선도대학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부가 기업가정신 교육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
-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얼마나 제공했느냐를 평가하는 '창업친화지표'를 만들어 대학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LINC사업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립
- 초·중·고 교육에서의 창업교육은 일부 고교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반영 상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비즈쿨 운영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02년 15개로 출발하여 2010년 149개 학교로 확대 됨
- 중학교는 창업에 관한 직접적인 편성이 없고, 2009년 개정교육 과정에 진로와 직업 과목이 신설, 고등학교는 부분적으로 창업 및 기업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나 기업가정신 교육이 전무하여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과제
- 현재 164개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학부과정에서 실시, 일부 대학에서는 희소하게 학과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나 대부분 대학별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 대학원에서 전문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대학원 운영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성과는 미흡,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실시 후 수료생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창업 자금 및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인 기술창업 아카데미를 실시

● 국내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수요원 양성과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교육자의 훈련과 육성, 실질적·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개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체계적인 기초교육, 현장경험의 극대화로 생태계 내 기업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혁신활동의 고도화, 지속 가능한 재원의 확보 등
- 기술과 학제간의 융·복합 교육의 강조와 창조성, 교육 수요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해지고 기회추구형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국내 사례 분석의 시사점

-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①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저조, ②교양과목 중심의 학습으로 인한 효과성 저조, ③창직에 대한 인식 저조, ④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전공한 우수 교원의 부족으로 교수 방법과 교원양성에 어려움 존재
- 기업가정신 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된 체계적 시스템으로 '교육-컨설팅-창업보육-네트워킹'이 일원화된 기업가정신 진흥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중·고교 수업과정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부족하여 대학교육에서 이를 전담하기에는 어려움 존재, 중·고교에서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들의 조기 교육으로 창업 기업가 양성을 촉진

기업가정신 교육은 태도와 인식,
기업가정신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노출이 중요,
학제간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적 교수법 개발과
교육 인프라 구축 기술 활용으로
지역적, 계층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대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 기업가정신은 현실안주를 극복하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남들이 안 하거나 못하는 것에 도전,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성공 확률이 있는 것에 도전,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으로 정의 가능
 - 앙트러프러너는 개척가·혁신가를 뜻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가치를 창출, 사회의 발전과 창조적인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
 -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인프라, 자본, 시장을 기반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력 참여를 통한 성공사례로 이어지는 기업가정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중요
-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은 기업가적 인성과 태도를 배양하는 것
 - 새로운 것을 고안해 내는 창의력, 남보다 먼저 변화를 읽는 통찰력, 주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분석하는 능력,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는 도전정신과 교육의 병행
-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류, 자본, 인력에 대한 국가간 장벽은 낮아지나 지식재산만은 예외적으로 국가간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 지식재산을 산업화하는 벤처기업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세계적 대기업의 뿌리와 새롭게 떠오르는 세계적 대기업 모두 기술벤처기업인데 반해, 한국의 대기업은 예외적임
 - 독특한 경쟁력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 직원들의 높은 자부심과 만족도,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진정한 벤처기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이러한 도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 기업가정신 교육
-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형성
 - 1960년대 정부주도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1970년대 중화학공업 정책, 국가기간산업 육성 등
 - 대형 국책사업,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의 성공적 사업화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특혜
- 대기업의 사회적 영향은 글로벌 경쟁력, 국부 창출, 국가 브랜드 격상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회의 독점, 불공정 거래, 고용 없는 성장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음
 -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역동성'으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은 기업가정신의 토양이 될 수 있으나 기득권의 부당한 특혜, 불로소득, 기회의 독점은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저해
 - Fast Follower 방식의 성장은 한계가 존재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
 - 정부는 경쟁의 규칙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대기업을 감시, 견제해야 하고 미래의 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투자 필요
-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은 인성교육(가장 기본적인 교육), 창의성 교육(자료수집, 분석, 창작연습), 도전정신 교육(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음
 - 왜곡된 사회 현상, 역사,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잘못된 국민인식이 자리잡아 교육에 있어서도 학습의 본질은 외면한 채 외형만 추구하는 창의력 저해, 일방적, 수동적 교육이 대부분임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도덕성 등의 인성교육, 두 번째 단계로 예절, 사교성, 의사소통의 사회성 교육, 세번째 단계로 전문지식 교육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전문지식 교육에만 치중
-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고 벤처기업이 살아나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 모범국이 될 것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인프라, 자본, 시장을 기반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력 참여를
통한 성공사례로 이어지는 기업가정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중요



우리나라 중·고교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과 대안

하규수 (호서대학교 교수)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지침서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정규 교과목 중의 한 부분으로 기술하도록 함
 - 성취지표 : 초등학교는 일과 직업의 중요성, 직업의 역할과 소중함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설명, 중학교는 직업세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의 흐름 제시, 고등학교는 미래 직업세계 변화 양상, 새로운 형태의 직업유형, 특성화고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
- 비즈쿨 지원사업은 2002년 중소기업청에서 시작, 2009년 창업경영컨설팅협회, 2010-2012년 창업진흥원에서 주관, 방과후 학교나 동아리 활동으로 수업, 연간 30명씩 120개의 학교에서 약 3,6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음
 - 비즈쿨 사업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2권, 중학교 1권, 고등학교 3권으로 인정도서 인정과 창업과목의 정규 교과목화를 희망하고 있음
 - 비즈쿨 운영학교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 함양 등 다양한 경제, 창업관련 체험활동의 기회가 주어짐
 - 사례1) 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수학과 과학, 발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적욕구 충족, 창의성 신장, 자발적 탐구능력을 개발
 - 사례2)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로 사회인식의 변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내신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들의 진학률이 늘고 있는데 무분별한 대학 진학보다는 자신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 소신 있게 지원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
 -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미약
 - 기업가정신 교과목이나 분야가 정규 과목에 포함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멘토 또는 리더 역할을 할 교사가 부족하며 교사들의 전문성과 인식이 부족

- 기업가정신 교육 문제의 해결방안
 - 이론과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자와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초·중·고 인근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경영 경험자를 활용,
 - 기업과 학교를 연계한 창업 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언론홍보 등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이 필요
 - 사례1) 미국 몬타비스타고등학교 : 실리콘밸리의 영향으로 산학 연계나 지원이 다른 곳보다 수월하고 창업 비영리 단체 (DECA, FBLA) 등의 지원을 받아 창업교육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
 - 사례2) 미국 FREEMONT 고등학교 : 학교 내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학교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기도 함, 실무위주의 창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교사들은 방학 동안 창업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도 받고 네트워크도 형성

비즈쿨 운영학교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 함양 등
다양한 경제, 창업관련 체험활동의
기회가 주어짐



정부의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정책

금기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 교과부에서는 기업가마인드 교육의 강화를 추진중

- 대학 창업지원조직의 설치, 글로벌 기업가센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등이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업교육센터를 대학 창업교육의 총괄 운영기관으로 활용할 예정

- 창업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와 창업교육센터 협의회를 설립

- 창업교육 운영위원회는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의 심의, 조정, 평가를 위해 각 대학의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창업교육센터장 등으로 구성, 연도별 창업교육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을 점검, 창업교육 강화 등을 수행
- 창업교육센터는 대학 내 기업가정신 교육 전담조직으로 기존 운영부서의 기능강화 또는 별도 신설을 통해 대학의 창업교육을 총괄, 대학 창업교육을 통합지원,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 학생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기획 담당 (국내 61개 대학에 설치)
- 창업교육센터 협의회는 대학 간 창업 교육 관련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 증진, 창업사업의 공동수행, 창업교육 및 연구에 관한 정보와 담당자 교류, 창업 관련 정책 건의 등

- 창업교육센터는 교육, 멘토링 및 코칭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 수행

- 학점인정 창업강좌(학년별/전공별) 개설,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창업 교육 전담 교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 전반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기획과 운영, 창업동아리 육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창업 멘토링 Pool 구축, One-Stop 지원 네트워크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창업유관기관과 협력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창업교육센터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로드맵 작성, 창업교육센터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역할 수행

- 창업교육센터 협의회 출범 및 간담회 개최, 전문가 간담회로 창업교육센터 기본 운영지침 설명 및 센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
- 해외 선진 창업교육 현장 조사로 카우프만재단FastTrac, 시카고대학 Entrepreneurship 센터 외 8개 대학 방문 조사,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확산, 학교지원 체계 및 네트워킹 등 벤치마킹
- 전국 학생창업 경진대회인 캠퍼스 영웅전은 약 5개월간 5회의 미션을 수행하여 우승팀 시상
-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 2차 창업교육 활성화 포럼 개최와 창업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캠퍼스 영웅전, 산학협력 EXPO를 개최

대학 창업지원조직의 설치,
글로벌 기업가센터,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등이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업교육센터를
대학 창업교육의 총괄 운영기관으로
활용할 예정



토론내용

●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

- 기업가정신은 어려서부터 교육에 의해 형성 가능한 것. 메리 고든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친구를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다루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가능하다고 함
- 취업이 되지 않아서 창업을 하는 등의 결과중심적인 창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김진수 (중앙대학교 교수)

- 전문화된 기업가정신 대학 설립이 필요, 스웨덴의 SSES(스톡홀름 기업가정신 대학)가 비슷한 사례로 스웨덴의 5개 대학이 연합하여 기업가정신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별로 교육을 실시하되 교수들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학생들이 전문화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초중고 교육에서 아쉬운 부분은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초등학교 교재가 123/456학년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 초등학교가 읽을만한 재미있는 전문서적의 개발이 필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양성 시스템이 필요

● 이병희 (한양대 교수)

- 기업가정신 교육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반 기업정서 해소와 시장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에 도움
- 기업가정신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및 가이드 제시가 없다는 것. 유럽의 경우 2006년도 오슬로아젠다를 통해 초중고에서 반드시 기업가정신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영국의 90% 이상의 중고교에서 기업가정신을 교육
-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 교육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실무경험과 학문경험이 많은 분들을 섭외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카우프만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민간 재단으로 기업가정신 연구사업에 사용하는 펀드가 연간 1조 원 수준. 체계적인 연구활동 장려를 통해 실무와 학문 역량을 겸비한 교수요원 양성이 필요

●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 기업가정신은 교육을 통한 체득뿐 아니라 경험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체득이 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
- 기업가정신 교육에서는 금전적 이윤창출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도덕성 (더 중요한 고차원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
- 단순한 성공이 아닌 Beautiful Success 즉, 칭찬받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기업가가 칭송 받고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 정착이 중요
-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 인식을 갖추어 주는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 하규수 (호서대학교 교수)

- Outliers라는 책에 보면 '로제또 미스터리'가 나오는데, 이태리의 장수마을인 로제또 마을의 장수요인을 밝히는 것으로 장수요인은 음식, 생활방식 등이 아닌 문화에 존재. 소통하는 문화 과정에서 장수하는 것을 보면 트레이닝을 과하게 시킨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음

●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

- 기업가정신에 대한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 문화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문화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구호로는 아무런 개선 없이 구호로만 그치게 됨. 쉽게 바꿀 수 있는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 이는 재정 문제로 이어져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됨
- 특정 대학을 만들어 능력과 기질이 있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전문화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은 대안임. 네덜란드에서는 10여 년 전에 이러한 학교를 만들어서 성공

